

물소리 · 새소리 · 바람소리 동무삼아 마음껏 걸어보자

석굴암·불국사길 - 토함산 아름다운 자연환경 · 한국 고대 불교 예술 정수 과시 고창 고인돌길 -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 442기가 남쪽자락 높이 자리 잡아

지난 9월12일 진도 5.3, 5.8의 강진이 강타한 경북 경주시에서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진도 2.5, 11시50분께 진도 2.2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는 등 여진이 지속하고 있다. 이날까지 관측한 지진은 무려 483회에 달한다.

경주 지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온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첫째가 시간 안전이고, 둘째가 경주가 품고 있는 고귀한 문화재의 이상 유무일 것이다.

마침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가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국내에 산재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을 만나는 걷기 여행길 9선을 선정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어깨를 으쓱거릴 수 있게 하지만, 훗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의무도 부여하는 소중한 자산인 세계문화유산을 길 위에서 만나보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상의 얼과 혼은 계속 숨 쉴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이달의 추천 길'은 걷기여행길 종합 안내 포털(www.koreatrails.or.kr)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 석굴암·불국사길 (경북 경주시)
석굴암과 불국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5년 등재된 세계적인 걸작이다.
신라 제35대 경덕왕 시절 재상 김대성이 지었다. 당시 신라인이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영한 불교 건축과 조각은 신라인이 신성시한 수도 서라벌(현 경주)의 진산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며 한국 고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과시한다.
*(사)한국외국문화 02)6013-6133
*경로 : 석굴암 매표소~석굴암~석굴암 매표소~불국사
*거리 3.3km, 소요시간 1시간30분, 난이도 보통

▲ 도심 고궁 나들길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1995년 등재된 종묘, 1997년 등재된 창덕궁을 차례로 만나는 길이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에서 시작해 조선 궁궐의 원형이 잘 보존된 창덕궁과 후원을 거쳐 창경궁을 거닌 뒤,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걷기를 마무리한다.
걷는 거리는 10km가 채 안 되나 아름다운 전각들과 연못들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왕과 왕비가 생전 지낸 궁궐과 죽은 뒤 남은 신위를 모시는 종묘까지... 이 길은 조선 왕조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길이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02-133-2149
*경로 : 경복궁~국립민속박물관~종묘문화원~창덕궁~창경궁~종묘
*거리 8.6km, 소요시간 3시간30분, 난이도 쉬움

▲ 토성산성 어물길 2코스 남한산성길 (경기 광주시)
서울 송파구 마천역에서 출발해 남한산성을 한 바퀴 도는 제법 길고 힘든 코스다.

우리 역사에서 남한산성만큼 오욕으로 점철된 곳도 드물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항복한 조선 제16대 왕 인조가 청태종 앞에서 3배 9고두를 한 삼전도의 굴욕을 지켜봤던 곳이며, 제22대 왕 정조 때 일어난 신해박해(1791~1866년) 때는 천주교인 수백 명이 이슬로 사라진 곳이기도 하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육군교도소가 들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남한산성은 원형 그대로 복원돼 서울 근교 대표 명소를 자리 잡았다. 2014년 6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재)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031-777-7500
*경로 : 마천역~만남의광장~남한산성 등산로 입구~남한천 약수터~남한산성 임문(수어장대)~서문~북문~좌익문(동문)~남웅성~지화문(남문)~남한산성 행궁
거리 13km, 소요시간 5시간, 난이도 어려움

▲ 서오릉 나들길 (경기 고양시)
서오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중 하나다.
서오릉 나들길은 도심에서 멀지 않아 가볍게 나들이 떠나기에 좋다.
'서쪽에 다섯 왕릉이 모였다'는 뜻처럼 이곳은 경릉(제7대 세조의 원자인 덕종(추존)과 소혜왕후(추존) 한씨), 창릉(제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제19대 숙종의 원비 인현왕후 김씨), 명릉(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등 왕릉 5개가 자리한다.
*서오릉 관리소 02-359-0030
*경로 : 수경원~익릉~산림 산책길~창릉~흥릉~경릉~순정원
*거리 4.4km, 소요시간 2시간, 난이도 보통

▲ 수원 팔색길 화성 성곽길 (경기 수원시)
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려한 성곽의 아름다움과 거중기 등 기계를 활용한 과학성은 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길은 한국 성곽의 백미로 꼽히는 이 성을 돌아보며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화성은 당대의 철학, 과학, 문화가 총집결했다. '18세기 조선 실학의 결정체'라 불리는 이이다.
화성은 성곽 둘레 5.7km, 성곽 안쪽 면적 39만 평으로 서울 성곽과 비교해 절반쯤 되는 아담한 규모다.
동쪽 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143m 높이의 팔달산에 걸쳐 있는 전형적인 평산성(평지와 산을 이어 쌓은 성 형태)이다.
성곽 대부분이 복원을 마친 덕에 끊김 없이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망루와 누각 40여 개가 포진해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수원시푸른복지사업소 031-228-4551~4
*경로 : 장인문~화홍문~창룡문~팔달문시장~영동시장~못골시장~미니리광시장~팔달문~팔달산~서장대~화서문~화서공원~장인문
*거리 5.1km, 소요시간 2시간, 난이도 보통



▲ 사비길 (충남 부여군)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충남 공주시·부여군·전북 익산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8곳 중 하나다. 특히 부여군에는 사비성과 관련한 관북리 유적(관북리 왕궁지),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내성 등 가장 많은 유적이 분포한다. 사비길을 걷다 보면 모두 만나게 된다.
*부여군청 문화관광과 041-830-2222
*경로 : 부여시외버스터미널~신동엽 생가~부여 공남지~능산리 고분군~금성산~국립부여박물관~정림사지~부소산성~구드래 조각공원~부여 시외버스 터미널
*거리 13.4km, 소요시간 6시간, 난이도 보통

▲ 고창 예향천리 마실길 7코스 고인돌길 (전북 고창군)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고창군, 전남 화순군, 인천 강화군의 고인돌 유적은 기원전 1000년에 만들어졌다. 장례와 제례를 위한 거석문화 유산이다.
이 중 죽림리 매산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고창 고인돌은 규모가 크고 형태가 다양하다. 덮개돌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 442기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언덕 남쪽 자락 15~50m 높이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고창예향천리마실길 7코스 고인돌길 종착지에 있다. 이 길은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며 세 바퀴 돌면 극락 승천한다는 고창읍성에서 시작해 판소리를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 생가를 거쳐 도달한다.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관리담당 063-660-2871
*경로 : 터미널~석탄마을~도산 정보화 마을~고인돌 박물관~고인돌 공원
*거리 5km, 소요시간 1시간40분, 난이도 보통

▲ 유교문화길 2코스 하회마을길 (경북 안동시)
한국의 역사마을로 일컬어지는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과 경주시 양동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

재됐다.
유교문화길 2코스 하회마을길에서는 굽이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산길, 들길을 지나 병산서원과 하회마을을 만난다. 하회마을은 민속적 전통과 건축미를 잘 보존한 풍산 류씨 씨족 마을이기도 하다. 조선 선조 때 명신 서애 류성룡 등 많은 고관대작을 배출한 양반고을로 임진왜란 당시 피해도 없어 전래의 유습이 잘 보존됐다.
*유교문화체험학교 054-858-1755
*경로 : 안동한지~소신마을(삼구정)~병산서원~만송정~하회마을 정터~하회 삼거리
*거리 13.7km, 소요시간 4시간, 난이도 보통

▲ 가야산 소리길 (경남 합천군)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 고려 중기인 15세기 건립됐다.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이다.
천년고찰 해인사를 감싸 안은 가야산은 우두산, 설산 등으로도 불렸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1430m 상왕봉이다. 상왕봉과 두리봉 골짜기에서는 낙동강 지류인 가야천이 발원하는데 이 냇물이 해인사 앞을 지나면서 붙여진 이름이 흥류동 계곡이다.
봄에는 진달래나 철쭉이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가을에는 단풍이 계절에 제 몸을 비취 냇물이 붉은빛을 띠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얻었다.
이 계곡은 해인사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옛사람들은 계곡을 넘나들며 해인사를 올랐지만 계곡 옆으로 찾길 나면서 옛길 일부는 찾길 아래로 묻히고 더러는 있었는데 가야산국립공원 이 옛길을 복원해 이제는 물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를 동무 삼아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됐다.
*가야산국립공원 사무소 탐방시설과 055-930-8000
*경로 : 대장경축전장~소리길 탐방지원센터~농산정~길상암~소리길6교
*거리 6km, 소요시간 2시간, 난이도 쉬움

/뉴시스

전라북도 | 2017 WORLD TAEKWONDO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계는 무주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2017 전북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6.22-30 (9일간)